

한국전쟁기 시에 나타난 자연심상의 양상과 생명의식*

김인섭**

|| 차례 ||

- I. 서론
- II 자연심상의 양상
- III 주요심상에 나타난 시의식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전쟁기 동안 쓰여진 시들의 자연심상에 나타난 시의식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전쟁시기인 1950년대 전반기는 문학사의 공백기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시기 전쟁시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내용 위주의 유형별 분류에 의한 논의에 치중되어 왔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참전하거나 종군한 시인들에 의해 쓰여진 시들에 나타난, 정제(精製)되기 이전의 무의식적 분출에 가까운 상상력의 특질을 살펴 문학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연심상의 인식에 드러난 시의식, 특히 생명의식의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쟁기 시에 등장하는 자연심상은 동식물 심상 중에서는 식물심상이, 천체와 대지 심상에서는 천체심상이 빈도수가 많았고, 시적 심상으로서의 역할이나 비중도 높았다. 식물

* ‘(한국) 전쟁기 시’라는 명칭은, 개념적인 용어인 ‘전쟁시’와 구별하여, 말 그대로 전쟁 기간 동안 쓰여진 시로 시기적 범위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말로, ‘전쟁시’와 내포적 의미의 중첩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제한적으로 쓰고자 한다. 기존연구를 언급하는 경우, ‘전쟁시’라는 용어를 병칭하게 됨을 밝혀둔다.

**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은 ‘꽃’과 ‘나무’, 천체는 ‘달’과 ‘별’이 주요심상으로 등장하고, 각 심상마다 특유한 생명의식을 드러내었다. 특히 ‘별’ 심상은 생명을 정화하고 부활시키는 우주적 차원의 상상력과 생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바, 한국 시인들의 집단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상상력의 한 패턴으로 볼 수 있으며, 전쟁기 이전이나 그후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목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전쟁기에 쓰여진 작품들의 자연심상에 나타난 시의식은 1950년대 전반기를 문학사적 공백기로만 볼 수 없게 하며, 급작스러운 극한 경험에서 표출된 일련의 시의식은 분단을 전후한 한국현대시의 지층을 재검토해보게 한다.

주제어 : 한국전쟁, 자연심상, 식물심상, 천체심상, 생명의식, 무의식의 집단적 표현

I. 서론

지금까지 한국 전쟁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념 위주의 북한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쪽 문단에서도 1950년대 전반의 전쟁기 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쟁시는 전언(傳言) 위주의 시라는 선입견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를 꺼린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¹⁾ 북한의 전쟁시가 선전선동의 무기인 데 못지않게, 남한의 경우는 반전(反戰)의 이념을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거나²⁾, 남북한의 전쟁시를 전쟁 독려시와 전쟁 비판시라는 틀에 의거하여 고찰하면서 북한은 전쟁비판시가 부재한다³⁾고 하는 등, 전쟁

1) “전쟁시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난감하다. 전쟁시의 시적 긴장과 질서를 찾아내는 작품분석이 요구되나, 실제 전쟁시를 읽어보면 ‘시’로 읽어내기엔 무리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 21호, 2008.4, pp.222-223.

2) 한형구, 『1950년대 한국시』, 『1950년대 문학 연구』, 문학과 비평연구회편, 예사, 1991, pp.59-77.

3) 정원채, 『한국전쟁 시기 남북한 전쟁시 비교연구』, 『한성어문학』, 제24집,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05, pp.119-141.

시의 성격을 미리 예단하고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논의가 대부분이다.

한국 전쟁시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고찰을 하는 경우에도, 전쟁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적인 분류를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서구 전쟁문학의 연원을 검토하면서 한국 전쟁시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오세영은 “전쟁시 역시 전쟁문학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선전 선동시, 르포 혹은 더큐먼터리 시, 반전시, 전쟁서정시 등이 그것이다.”⁴⁾라고 하면서, 유형적 분류를 통해 한국전쟁시의 전모를 개괄한 바 있다.

이승하는, 전쟁기간 동안을 문학사에서 공백기로 남겨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전쟁기간에 쓰여진 작품의 시적 특질을 살폈다.⁵⁾ 전시에 발간된 육군중군작가단의 기관지 『전선문학(戰線文學)』에 수록된 시를 대상으로, 그 작품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들 시의 특질을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시’(8편), ‘군인과 국민의 사기를 양양하는 시’(10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수시’(8편), ‘종전과 평화를 갈망하는 시’(9편)’ 등으로 분류하였다.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수시’ 외의 나머지 항들은 특질이라기보다는 시의 내용을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쟁시 연구는 아직도 ‘무엇을 말하였는가?’라는 전언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시문학 본령의 특질들에 관심, 즉 시의 서정성 문제라든가, 시적 형상화를 위한 기법, 시적 상상력이나 시의식의 특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전쟁시에 대한 선입견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로 막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4) 오세영, 『6.25와 한국전쟁시 연구』, 『한국문화』13, 1992, p.238.

5)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 -『전선문학』 발표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42, 배달말학회, 2008.

선행연구 가운데, 전쟁시의 유형적 분류 작업을 한 오세영이 분류항목의 하나로 ‘전쟁서정시’를 설정하고 매우 제한된 분량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전쟁 수행기에 쓰여진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승하도 네 가지 분류항목 중에서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순수시’를 다루는 항에서만 전쟁시의 서정적 내용을 고찰한 적이 있다. 전쟁시의 서정성에 대한 논의는 내용 분류의 한 방편으로 소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필자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쟁시에 나타난 자연심상과 그 서정적 효과에 대해 고찰한 적이 있다.⁶⁾ 자연심상을 즉물적, 비유적, 상징적 심상으로 분류하고, 선동적인 시 풍토에서도 시창작장에서 각각의 자연심상이 어떻게 서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 편의 시에서 시적 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였다. 본고에서도 한국전쟁시에 나타난 자연심상을 다루고자 하는바, 전쟁이 진행되는 기간에 쓰여진 시를 대상으로 한다. 전쟁을 치르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시적 심상으로 수용한 양상과, 극한의 상황에서 시인들은 이들 심상을 통하여 어떤 시의식을 드러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고찰을 통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전쟁시기에 쓰여진 시들에서 상상력의 독특한 패턴이나 어떤 특징이 발견된다면, 한국 시사에서 1950년대 전반기에 중요한 시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나아가 광복 전후를 연속해 흐르는 시문학사의 또다른 지층을 엿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동기에서 본고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을 수행하거나 종군한 시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전쟁 기 작품은 다음과 같다.

6) 김인섭, 「북한 전쟁시에 나타난 자연심상 고찰」, 『국어국문학』 제158호, 국어국문학회, 2011.

- (1) 24명 시인의 35편의 시가 수록된, 육군중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1~7호)⁷⁾
- (2) 전쟁 첫해에 발간된 『新天地』
(속간 전시판, 6-1호, 전시판 7-1호)⁸⁾
- (3) 장교로서 참전한 시인들의 작품 68편을 수록한 『한국전쟁시선』⁹⁾

II. 자연심상의 양상

아래의 분류표는 한국전쟁기 시에 나타난 자연심상을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의 이분법적체계로 분류하여, 그 시어들의 빈도와 분포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7) 『전선문학-전시판』, 중앙문화협회, 1950.10.15.

『전선문학』(2~7호), 육군중군작가단, 1952.12.5, 1953.2.1, 4.20, 5.25, 9.1, 12.1.

8) 서울신문사출판국, 1951.1, 12.15.

9) 한국전쟁시선간행위원회, 상일문화사, 1973.(이하 ‘전쟁시선’으로 약칭)

서두의 ‘간행사’에 따르면, “지난날 조국의 운명을 걸머진 화랑의 후예, 특히 장교(將校)로서 몸소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애오라지 몸과 목숨을 바쳤던 참전시인들의 시작품, 그 치절한 영혼의 질규를 한데 묶어 ‘한국전쟁시선’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쟁시선’은 1973년에 간행된 것으로, 전쟁수행중에 씌여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장교로서 직접 전쟁을 수행한 시인들의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본고에서는 전장(戰場)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심상을 구사한 양상을 참조, 인용하였다.

〔한국전쟁기 시 자연심상별 분포〕

분류	심상 시어		
식물 (37)	꽃(20)	고유명사 (10)	석류꽃(2), 벽도화, 양난초, 능금꽃, 장미, 들장미, 나팔꽃, 동백, 해바라기
		일반명사 (10)	꽃(2), 꽃잎(2), 꽃줄기, 꽃밭, 꽃떨기, 화분(花盆), 화분(花粉), 정원
	나무 (17)	고유명사 (5)	포도넉쿨,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밤송이), 감나무
		일반명사 (12)	나무(2), 가지(2), 잎새(2), 순(荀), 잎, 이파리, 낙엽, 과일, 수액(樹液), 숲
천체 (15)	별(7)	별빛(3), 별(2), 셋별, 은하(銀河)	
	달(4)	달, 달빛, 달무리, 그믐달	
	하늘(4)	하늘, 파란 하늘, 맑은 하늘, 별 하늘	
대지 (10)	흙(2), 지층, 흙더미, 돌맹이, 지열(地熱), 지층, 땅 속, 산령(山嶺), 영토		
동물 (14)	새, 부엉이(3), 백조, 불사조, 빠꾸기, 피꼬리, 나비(2), 매미, 구렁이, 꽃뱀, 개		

※ 괄호 안 숫자는 100여 편의 작품 중 해당 심상이 등장하는 시의 편수.

한국전쟁기 시에 나타난 자연심상은, 빈도수로 보면 ‘꽃’, ‘나무’ 등 식물 심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물심상은 조류(鳥類)가 널리 나타나며, 대지를 기어다니는 동물심상은 매우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대지와 천체 심상에서는 대지심상보다 천체심상이 두드러진다. 대지심상은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는 심상이기보다는 ‘땅’, ‘지층’, ‘영토’ 등 외연적, 지시적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천체심상은 ‘별’, ‘달’, ‘하늘’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하늘’은 대부분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지상의 정황과 대조적인 공간적 배경 심상으로 등장하며, 별다른 시적 함축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에 반해 ‘별’과 ‘달’은 변별적인 시적 의미를 함축하는 독자적

10) 대지의 심상 가운데 강(江), 천(川) 등 ‘물’의 심상은 한두 편에 등장하며, 시에서 주도적인 심상이라 보기 어렵고, 일단의 시 의식을 추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인 심상으로 기능한다.

식물심상은 ‘나무’보다 ‘꽃’ 심상이, 천체심상에서는 ‘달’보다는 ‘별’ 심상의 빈도가 높고, 시에서도 중요한 심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기 시의 중심적인 자연심상은 지상의 ‘꽃’과 천체의 ‘별’이라 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심상들은 시의 배경을 드러내거나 풍경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적 심상으로서 등장하는 경우에도 상투적인 비유나 단순한 상징을 드러내는 때가 많다.¹¹⁾ 간단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불사조(不死鳥)되어 나래 퍼덕이는
태극기(太極旗)의 수도(首都) 서울로 가자.

이정호, 『서울로 가자』 끝연¹²⁾

산(山)빛탈 네리닿는 붉은개 / 붉눈슬듯 쓸어저라.

조영암, 『進擊의 노래』 3연¹³⁾

『서울로 가자』에서 ‘태극기’를 비유한 동물심상 ‘불사조’는 새의 퍼덕거림을 휘날리는 깃발의 움직임에 비유하고, 불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적 함축력이 떨어지고, 환기력도 미약하다. 적군을 ‘붉은 개’에 비유한 『진격의 노래』 또한 상투적 표현을 넘어서지 못한다. ‘붉은’ 색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고, ‘붉눈 슬 듯’ 그들의 패망을 기정사실화하지만, 시적 긴장은 느낄 수 없다. 동물심상으로서 ‘부엉이’는 빈도 수에서 예외적으로 세 편의

11) 대지심상들은 비유나 상징의 심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드물며, 배경이나 풍경을 이루는 자연물로 나타난다.(예시 생략)

12) 『전선문학-문학』 전시판, p.37.

13) 『전선문학-문학』 7-1, p.31.

시에서 거듭 등장한다.

줄 이어 가는 피난민의 꺾가에 / 먼 산 부엉이도 설어히 울어라
박화목, 『피난(避亂)길에서』 첫연¹⁴⁾

부엉이처럼 울 수도 없는 / 잿빛 가슴을 안고
문상명, 『유실된 시간과 지워진 언어와』 끝연¹⁵⁾

나의 소망이란 차라리 / 침묵의 완충지대(緩衝地帶)에 스며들며
외로히 변신(變身)하는 부엉이씨(氏)
김종문, 『망향 望鄉』 5연¹⁶⁾

예를 든 시들에서 ‘부엉이’는 청각심상으로 등장하는데, 박화목의 시에서는 서러운 울음을, 문상명의 시에서는 화자의 속타는 마음을 대신 울어 준다. 김종문 시의 부엉이는 홀로 변신하는 새로서, 밤마다 울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 부엉이는 흔히 죽음과 밤을 상징한다.¹⁷⁾ 우리 민속에서도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죽음을 환기한다. 전쟁기 시에 거듭 등장하는 심상이지만,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인의 시 의식을 독자적으로 드러내는 심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같은 양상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시기의 시들에 등장하는 자연심상 가운데, 빈도수가 높고, 전쟁상황에 상응하는 시적 긴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의식의 일단을 드러내는 심상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식물심상에서는 ‘꽃’과 ‘나무’, 천체심상에서는 ‘별’과 ‘달’을 중심으로 살펴

14) 『전선문학-문학』 전시판, p.35.

15) 『전쟁시선』, p.50.

16) 『전쟁시선』, p.34.

17) 이승훈 편,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p.228.

보고자 한다. 전쟁체험은 강렬한 생명의지를 동반하게 마련이며, 따라서 전쟁기 시의 자연심상에서 주조를 이루는 시의식은 생명의식이라 할 수 있다.

Ⅲ. 주요 심상에 나타난 시의식

1. 식물심상

도표의 심상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쟁기 시에서 식물심상이 등장하는 시 편수는 나머지 ‘천체’, ‘대지’, ‘동물’들이 등장하는 시 편수를 합친 수보다 많을 정도로, 시인들은 식물심상을 선호하였다. 식물들은 녹색의 푸름 때문에 싱싱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꽃’은 지상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태로 아름답게 존재하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생명 희구의식을 드러내는 시적 심상으로 즐겨 쓰인다. ‘나무’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식을 자극한다. 느닷없는 죽음에 대한 경험과 그에 따른 긴장된 의식은 식물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친화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¹⁸⁾

1) ‘꽃’ - 생명의 원상(原狀) 희구

‘꽃’ 심상은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이 떠나온 고향의 자연을 회상, 묘사할 때 중심심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생명이 파괴되는 전장(戰場)에서 유년 시절 고향의 평화로운 생명공간을 환기하는 매개적 심상으로 등장하기도

18) 이러한 심리적 동기뿐만 아니라 ‘중군’이라는 특수한 복무 환경에서 식물들은 시의식을 의탁하기에 용이한 대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한다. 또한 전장에 등장하는 ‘꽃’은 순수한 생명이 파괴되는 모습을 표상하는 시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고향에서든 전장에서든 꽃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생명 본래의 원상(原狀)으로 인식된다.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자연심상으로서 ‘꽃’이 생명의식과 관련될 때 “생명의 미래적 염원과 예찬”을 내포하는 등가물¹⁹⁾로 규정되는 것과 대비되는 전쟁기 시의 특징적인 면모이기도 하다.

그대의 고향은 어느 산수(山水) 푸르른 충청도 산골인가 목청고는 찢꼬리
백극이들 많이 모여 사는 이름 모를 산꽃들 들꽃들 많이 모여 사는 어느 하늘
아래 마을인가?

서정주, 『一線行車中에서』 첫연²⁰⁾

앞서거니 뒤서거니 / 새들도 숲을 찾아 돌아가는 석양(夕陽)에
논길 밭길을 더듬어 / 어린 남매(男妹)가 분주히 가고 있다. //

<……>

저 멀리 / 능금꽃 구름피듯 하기만한 / 과포발 너머 조그만 마을엔
조그만 교회당(敎會堂)의 나무로 만든 십자가(十字架)가 / 황금색(黃金色)으로 빛난다.

장만영, 『석양소묘 夕陽素描』 1·3연²¹⁾

앞 시의 화자는 전장의 최전선을 행차하는 차 안에서 고향을 떠난 병사들의 고향마을을 떠올려보고 있다. 고향은 푸른 산수의 세계이며, 고향의 산이나 들에는 언제나 꽃들이 피어 있는 곳으로 상상된다. 새들이 우깃

19) 이문걸,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심상어의 변용적 의미』, 『새얼 어문논집』 13, 2000.12, p.350.

20) 『전선문학-전시판』, p.33.

21) 『전선문학』3, p.70-71.

고 꽃들이 만발한 고향은 비극적 인간생명으로 어지럽혀지는 전장과는 달리 자연의 생명력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푸른 산수’의 식물심상이 주조를 이룬다. 생명이 위협받는 전장에서 떠올리는 한국인의 고향공간은 들꽃, 산꽃들이 생명의 원상(原狀)을 이루는 곳이다.

장만영의 시는 어느 병사의 고향이기도 한 조그만 마을의 석양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새들이 돌아가는 숲, 능금꽃이 구름처럼 피어 있는 마을을 원경으로 하여 어린 남매는 가족과 떨어져 길을 더듬거리고 있다. ‘능금꽃’은 전쟁으로 유리(遊離)된 어린 가족의 방황을 비추는 배면을 이루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분리는, ‘꽃’ 심상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단절감을 느끼게 한다. 서정주와 장만영의 시에 등장한 ‘꽃’은 전장과 떨어진 평화로운 공간의 자연과 그 만개하는 자연 생명의 원상(原狀)을 표상하는 심상들이다. 전쟁기 시의 고향 공간에 등장하는 ‘꽃’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심상은 ‘석류꽃’이다.

장죽 떠는 소리 멀찌기 기침 소리
그렇던 대청엔 아이 서넛 놀고 있고
청(靑)이끼 짙은 담머리 석류꽃 피었다.

이영도, 『古家』²²⁾

너의 맑은 눈동자 깊이 / 석류(石榴)꽃 피는 고향이 트이고
너의 맑은 이맛전 위에 / 푸르디푸른 하늘을 엮고
전설의 밭에 심는 꿈 이야기 / 알려다오

김중문, 『이름 없는 용사의 遺産을』 1연²³⁾

22) 『전선문학』3, p.57.

23) 『전쟁시선』, p.32.

두 시의 공통적인 모티브는 ‘석류꽃 피어 있는 고향’이다. 이영도의 시조에서는, 병사가 떠난 고향에는 무료한 ‘노인’과 대청에서 놀고 있는 ‘아이’만 남아 있고, ‘석류꽃’은 떠난 병사의 빈자리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이끼 낀 담 머리에 피어 있다. 김종문의 시에서는 죽은 젊은 병사의 의식 깊은 곳에 석류꽃 피는 고향 풍경이 펼쳐진다. 마치 두 시가 하나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전장에서 ‘이름 없이 죽은 용사’의 맑은 혼은 ‘고향의 석류꽃’을 매개로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화자는 상상한다. 이들 시에서 ‘석류꽃’은 소멸된 생명의 허무를 극복하고 생명의 꿈을 이어가게 하는 생생력(生生力)의 표상이다.

고향의 식물심상에 대한 전쟁기 시인의 친화적 감정은 매우 강렬한데,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고향의 정경을 그린 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수령(樹齡)이 오십(五十)이 넘어도 우지개 피던 벽도화(碧桃花)는 폭탄(爆彈)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없는 담장이 실어서 나는 가지 않으렵니다. //
할아버가 가꾸던 양난초(洋蘭草)도 수명(壽命)을 다하고 화분도 바스려진 폐허(廢墟)가 싫어서 나는 가지 않으렵니다.

김기완, 『鄉愁』 1·2연²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의 풍경은 무엇보다도 ‘꽃’이 파괴된 모습(폭탄에 쓰러진 ‘벽도화’, 바스려진 ‘화분’)으로 그려진다. 파괴된 고향은 아무지고 알차게, 붉디붉게 피어 있던 복숭아꽃, 수명이 다하도록 꽃을 가꾸어내던 ‘화분(花盆)’ 등 꽃의 생명이 쓰러지고 바스려진 공간이다. 꽃을 가꾸는 사람들은 고향의 가족이며, 그같은 꽃을 볼 수 없는 고향에 대해서 화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고향 파괴를 자연친화적 생명감의 상실로 인식하고 있다.

24) 『전쟁시선』, p.20.

가시 돋힌 장미를 / 호, 호 불면서 //

내, 인생의 여백(餘白)을 / 하나씩 하나씩 / 지워 가든 날//

울지도 웃지도 / 아! 나는 / 못 하는데 / 소용돌이 친 자욱만 있어//

어찌든 / 새파란 숨결은 / 자꾸 금이 나는 날//

향기 그윽한 이파리 / 그늘진 나를 담아 / 생명(生命) 같은 것 / 메꾸어
가면 //

칼날 선 / 벼랑 한끝에 / 아스라이 서 있는 / 나의 모양.

박훈산, 「절벽(絶壁) 위에서」²⁵⁾

총알이 빨간 꽃잎을 찢고 날아갔다.
어디서 튀어나온 파편(破片)이 꽃줄기를 찼다.
나팔꽃은 어디서 화약(火藥) 냄새만 풍긴다.

문덕수, 「폐허(廢墟) 속의 나팔꽃」²⁶⁾

앞 시의 ‘가시돋힌 장미’는 생명이 생명을 찢르는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전쟁에 대처하느라 슬픔도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여백 없는 삶,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생명은 전쟁에 소모되면서 젊은이의 ‘새파란 숨결’은 해체되어 간다. 이 균열을 감싸주는 것은 ‘이파리’의 그윽한 향기, 즉 대기로 퍼지는 자연생명의 기운이다. 하찮아 보이는 ‘이파리’는 후각을 통하여 생명력을 발현하여 모든 ‘숨결’을 보전해내는 생명 치유력을 지닌다.

문덕수 시에서 찢겨진 ‘잎새’나 ‘빨간 꽃잎’은 돌리고 부러지고 찢어진 인간의 신체들임을 알 수 있다.²⁷⁾ 그런데 이런 신체적 찢어짐보다도 나팔

25) 『전선문학』6, pp.48-49.

26) 『전쟁시선』, p.41.

27) 같은 시선집에 실린 시인의 다른 작품 「대낮의 해바라기」라는 시에도 ‘총알’, ‘파편’의 심상이 거듭 등장하는데, “살 깊은 허벅지를 총알이 뚫었다. / 다리뼈는 세 토막으로

꽃이 ‘화약냄새만’ 풍긴다는 진술이 더 의미심장하다. 꽃의 꽃다움은 그 아름다운 빛깔과 더불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향기에 있는데, 향기 대신 화약냄새를 풍기는 나팔꽃은 생명의 찢어짐보다 더 심각한 존재 자체의 훼손과 변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을 불꽃처럼 터뜨리는 공포를 후각을 통해 확산시킨다. 이처럼 전장의 ‘꽃’ 심상은 시각적 모습보다 후각 심상을 통해 자연의 순수 생명력의 원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그 훼손과 공포를 역설적으로 환기하기도 한다.

고향에서든 전장에서든 ‘꽃’의 심상은 파괴되는 인간생명의 대척적인 지점에서 자연 본래의 순수한 생명체로 의식된다. 전쟁기 시의 화자들은 ‘꽃’ 심상을 통해 전쟁 이전의 평화로웠던 시간이나, 또는 전장과 멀리 떨어진 고향 공간의 자연을 회상하기도 하며, 생명 파괴와 그 공포를 경험하면서 파괴되지 않은 자연생명의 순수한 상태와 그 치유력을 회구하기도 한다.

2) 나무 - 생명파괴와 존재 상실감

식물심상으로서 ‘나무’는 ‘꽃’과는 달리, 생명파괴에 따른 존재의 상실감을 표상하는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는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 화자의 불안한 내면의식, 삶의 생명력 소진 등 생명이 영위하는 삶의 여러 부정적 정황을 표상하는데, 생명의 파괴는 대체로 존재의 상실감으로 귀결된다.

불면의 구렁이가 / 온 몸을 휘감는다
 쓸쓸한 마당이 문득 눈 뜨고 / 파헤쳐진 구덩이
 도난당한 나무들 / 집안을 한 아름에 품고 섰던
 느티나무 / 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부러지고 / 날아온 파편들이 이마와 눈썹을 찔었다.”(1~3행)는 표현을 볼 수 있다.

뿌리채 뽑혀 잃어버린 동백 / 몸부림치며 끌려간 누님이 / 소리치고,
 캄캄한 지하(地下)로 빨려든 살붙이들 / 간 곳이 없다.

시대(時代)의 피문은 삼날이 꽃힌 담 밑 / 잘 생긴 물푸레나무를 캐어간 자
 누구냐.

등나무가 어울어져 꽃 피던 자리 / 내 허전한 정원에 / 새벽은 다시 오고
 또 나를 흠치려는 자 / 문 밖에서 서성대며 엿보고 있다.

신규호, 『새벽』²⁸⁾

전장에서 귀향한 것으로 보이는 시의 화자는 상실감과 파멸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파괴되기 전 고향의 집은 나무들의 공간이었으며, 나무들은 가족과 동일시되는 존재였다. 느티나무는 아버지, 동백은 누님, 물푸레 나무는 잘 생긴 어떤 식구 등으로, 나무들은 가족이며, 가족은 곧 나무이다. 고향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없는 유기적 생명체의 공간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향 파괴는 다른 아닌 식물의 파괴이며, 식물의 파괴는 곧 가족의 소멸을 뜻한다. 가족이라는 생명공동체의 상실감은 화자의 불안의식을 가속화한다.

해마다 봄이 오면 / 해마다 새순이 돋는 나무, //
 아아 그와도 같이 / 내 가슴에 해마다 움트는 한그루 나무, //
 바람 속에 봄이 / 해마다 닥아 올지면 더욱이 아픈 가슴//
 오직 / 허무러져가는 연륜(年輪)에 맺혀진 그리움이 / 다시 움트기 때문, //
 영원(永遠)한 꿈길을 / 이와같이 꽃잎이 날리우는 푸른 하늘아래
 병든 가슴을 안고사 내가 죽어야--//
 아아 / 다시는 움돋지 않을 나무.

이윤수, 『나무』²⁹⁾

28) 『전쟁시선』, p.77.

29) 『전선문학』3, pp.88-89.

봄이 오면 어김없이 나무가 새로운 순(筍)을 뺏어내듯이, 인간도 새봄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의식을 움트며 연륜을 더해나간다. 그러나 계절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그리움의 고통만 움트게 되는데, 그 원인은 ‘꽃잎이 날리우’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시간이 되어 순리적으로 낙엽이 되지 못하고 꽃인 채 떨어지는 비생명적인 사태 때문이다. 전쟁은 살아 있는 생명의 율동을 가로막고 다시는 움트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새순이 돋는 나무’와 ‘다시는 움돋지 않을 나무’를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생명이 움트지 못하는 존재상실감을 해마다 소생하는 ‘나무’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그리움의 정서를 경험한다.

원통 세상을 휘덮든 / 무성한 가지와도 같이
 생길 때부터 가꾸어온 사랑. //
 일기책이! / 일기책이 찢어져 내려 / 낙엽처럼 호터져 내려
 편편히 부서진 기왓장과 하얀재와//
 이 속에 나만을 남게 하여 / 하늘아 / 하늘아 푸르지 말라.

서정태, 『어느날』³⁰⁾

인간의 행복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사랑을 가꾸는 일에서 얻어진다. 사랑은 생명으로 하여금 삶의 절정에 이르게 한다. 그같은 이치는 ‘무성한 나무 가지’에 비유되면서, 사랑을 소유한 생명력은 자연이든 사람에게서든 이 세상을 휘덮는다는 아름다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으로 생동하는 삶의 역동성과 확산력을 비유하는 ‘무성한 가지’는 찢어지고 흩뿌려지는 ‘낙엽’으로 전이되면서, 뺏어나가는 생명을 참혹하게 파괴한 전쟁의 폭력성을 부각시킨다. 동시에 혼자 살아남은 화자로 하여금 함께 사랑

30) 『신천지』 7-1, pp.94-95.

을 가꾸어온 존재들의 상실감에 휩싸이게 한다.

2. 천체심상

전쟁기 시들에 등장하는 천체심상은, 낮의 밝은 ‘하늘’이나 ‘태양’보다는 어두운 밤의 ‘달’과 ‘별’의 심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시적 심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같은 어둠 속 천체심상이더라도, ‘달’이 죽음의식과 관련되거나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명의식을 드러내는 데 반해, ‘별’은 어둠 속에서의 생명을 정화하거나 부활시키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심상으로 표상된다.

1) ‘달’-죽음의식과 생명의 침전

‘달’은 그 주기적인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시적 의미로 내포하는 경우가 많은 심상이다. 그러나 전쟁기 시에서 ‘달’은 죽음의식과 관련되며, 어둠 속에서 침전하는 생명을 표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명의식을 드러낸다.

달밤에 달밤에 이런 이야기 / 달빛이 몹시도 푸르던 밤
 소녀는 달빛을 마시고 죽었다는 소문//
 그때부터 / 나는 포도를 먹을 때마다/ 얼굴 하얀 소녀의 눈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때부터 / 나는 달밤을 무서워하며 자랐다

김요섭, 『포도 葡萄』 후반부(6~8연)³¹⁾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1952년에 쓰여진 이 시는 폐병으로 외롭게 죽어

31) 『전선문학』6, pp.52-53.

간 한 소녀를 사랑했던 화자의 유년시절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 의하면, 청포도가 다 익어가면서 사랑하던 소녀는 기침을 멈추고 죽게 된다. ‘달빛이 푸르던 밤’에 일어난 일이며, 성인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현재 시점에서 지난 시절의 달밤의 공포를 떠올리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어두운 밤에 죽음을 환기하는 달의 부정적 경험은 전쟁상황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죽음의식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구(出口)를 / 더듬은 눈자위로 / 달무리가 번진다.//

애떤 혼(魂)이 밀려 나간 / 하구(河口)의 먼 소식이며

이상범, 『설화 雪話』 3·4연³²⁾

죽음의 공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더듬는 눈자위와, 애떤 혼이 죽어간 하구가 병치되어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에서 죽은 어린 병사의 소식이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의식의 눈은 출구를 찾고 있다. 난롯가에 앉아 나누는 병사들의 이야기는 불안한 소식들일 터이고, 그들의 불안의식은 달무리처럼 서로의 눈길을 타고 번진다. 이 시에서 ‘달무리’는 죽음의식에서 비롯되는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한 감정의 객관적 상관물로 제시되어 있다.

숙(淑)이가 저렇게 바다를 안고 섰다. 숙(淑)이가 저렇게 바다를 앓른다. 누구가 토(吐)했는가 쟁반같은 푸른 달. 숙(淑)이의 가슴에도 달이 하나 떠 있다. 파도(波濤)결이 괴어 올라 달을 씻는다. 씨워오는 푸른 물을 달이 작고 벗는다 안아 파도 부디쳐도 바다는 말이 없고, 홀로 뜬 달을 안고 숙(淑)이 작고 서럽는다. 글성대는 푸른 달을 심장(心臟)처럼 앓른다. 뒤척이는 바다를 가슴처럼 앓른다.

32) 『전쟁시선』, p.114.

바다가 저렇게 숙(淑)이를 안고간다. 바다가 저렇게 또 숙(淑)이에게 흐느낀다. 뿌려오는 푸른 밤 동양(東洋)같은 달빛 흐름. 숙(淑)이 풀은 푸른 달은 어딜 향해 지는가. 숙(淑)을 안고 바다는 어느 밤을 넘는가. 달도 가고 밤도 가고 바다도 함께 가면, 달이 가서 달는 곳에 숙(淑)이도 달도 밤도 다오면 먼 어느 언덕에서 숙(淑)이 달을 삼킨다. 밤이 바달 삼킨다. 새로 오는 애원 빛이 밤을 삼킨다. 초록 바다 모랫가에 숙(淑)이 다시 서서 온다.

박두진, 『바다와 숙(淑)』³³⁾

이 시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전선문학』 5집, 1953.5.25.)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하여 시적 의미를 짐작해봐야 하지만, 그런 단서나 암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등장인물 숙(淑)은 ‘글성대는 푸른달’과 ‘뒤척이는 바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숙이라는 인물과 이들 자연심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안고, 토하고, 씻고, 벗고, 부딪치고, 앓는 일)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여기서 ‘달’은 쟁반같이 푸르고, 숙의 가슴에도 떠오르고, 파도의 물결에 씻기우기도 하고, 물결로부터 벗어나기도 하며, 숙이를 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글썽거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후반부에서는 셋 모두 밤을 넘고 있으며, 어디론가에 닿으면 숙이는 달과 바다를 삼키고, 앓던 빛은 밤을 삼키며, 숙이는 다시 울음을 반복한다. ‘숙’은 밤마다 바다와 달과 씨름하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을 뿐이다. 달도 푸르고, 바다의 물결도 푸르며, 뿌려오는 밤도 푸르다.³⁴⁾ ‘달’은 푸른 어둠 속에서 침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의 그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33) 『전선문학』 5, pp.25-26.

34) 이 시에서 ‘달’과 ‘푸름’의 심상은, 박두진의 전쟁 후에 씌어진 『날개』라는 시의 ‘하늘 빛’으로서의 푸름의 상상력(“하늘빛 새파란 하늘빛 푸름 위에, 햇살에서 뿌려진 별빛 같은 것, 그런 것이 번쩍이는 눈이 부신 것 쭉지 - 물에서도 안 젖고 불에서도 안 타는 나를수록 더욱 빛나 가는 푸른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이다.

이처럼, 전쟁기 시에 등장하는 ‘달’ 심상은 공통적으로 전쟁과의 직접성은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죽음의식을 표출하며, 때로는 생명의 부침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

2) ‘별’-생명의 정화와 부활의식

전쟁기 시에서 ‘별’은 어둠의 공간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 ‘빛’으로 지상의 더러워진 생명을 씻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명을 부활시키기도 하는, 신성성을 내포하고 있는 심상으로 등장한다. 서로 다른 시인의 작품에서 거듭 발견되는바, 전쟁기 시의 독자적인 특질을 가장 뚜렷하게 지닌 심상이다.

지축(地軸)을 울어주던 / 그 술한 탄도(彈道) 저편 //

푸념을 달래 가는 / 눈보라의 뒷모습은 //

별 하늘 / 머리에 이고 / 목비(木碑)가 된 내력인 것.

이상범, 『설화 雪話』 7~9연³⁵⁾

죽음의 곡선이 난무하는 지상에서 죽어간 어느 생명을 기념하는 목비는 ‘별 하늘’을 이고 있다. 지상의 죽음은 천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조응하고 있다. ‘별’은 죽음이 지배하는 지상과 거리가 먼, 어둠 속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기 다른 시들에 나타나는 ‘별’의 상상력 패턴에 따르면, 이제 곧 빛으로 하강하여 죽음을 비추고, 죽음을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뉘이 은하(銀河)에 갇히고 / 빛과 바람과 흙을 엮으며

35) 『전쟁시선』, p.114.

너의 핏자국에 들장미(薔薇) 움트고 / 너의 체온이 지열(地熱)을 내뿜으며
 슬기 찬 미소 짓는 풍토(風土), / 이뤄다오, 너의 어진 포용(包容)을
 대(代) 이어 전해다오, 겨레여 / 이름 없는 용사의 유산(遺産)을

김중문, 『이름 없는 용사의 遺産을』 3연³⁶⁾

앞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이 시의 ‘너’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존재로 ‘넋’의 상태다. 몸은 죽었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넋은 그의 생명을 다스린다. 그의 넋은 무한한 천체의 은하에 깃들어 빛과 바람과 흙을 엮는 우주적 생성을 이루고, 육신이 남긴 핏자국이나 체온은 꽃을 움트게 하며, 깊숙한 대지의 열기를 솟구치게 하여 대지적 생명체로 부활한다. 여기서 별의 심상 ‘은하’의 세계는 지상의 죽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세계를 낳게 하는 우주적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날엔 싸움터였던 / 흙페미 위에 반듯이 누워
 이지러진 눈으로 그대는 / 그래도 맑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가 //
 밤하늘을 타고 / 내려오는 별빛이 / 그 자리를 수억만번 와서 씻은 뒷날
 새벽에 //

그 뿌리는 나무가 되고 / 숲이 되어

네가 / 장엄(莊嚴)한 산령(山嶺)을 이룰 것을 나는 믿나니

천상병, 『무명전사 無名戰死』1·5·6연³⁷⁾

이 시의 제목은 ‘이름 없이 전쟁에서 죽음’(無名戰死)이라는 뜻이다. 그 죽음의 주인공은 물론 전사자(戰死者)이다. 화자는 이름없이 죽는 사태를 목도하고서, 아득한 시간을 통해 뿌리로 생명을 내리고 마침내는 장엄한 산봉우리로 솟아오를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밤하늘의 별

36) 『전쟁시선』, p.32.

37) 『전시문학』5, pp.32-33.

빛이 싸움터, 즉 죽음의 자리를 한 없이 정화키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이다. 전쟁에 의한 죽음의 자리는 더럽혀져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쟁기 시에서 별은 이렇게 대지를 갱신시킨다. 별은 대지를 정화하고 회생시키는 우주적 생명력을 지닌 독특한 특질을 가진 천체 심상이다.

목숨은 때 묻었나 / 절반은 흙이 된 빛갈 / 황폐한 얼굴엔 / 표정(表情)이 없다. //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 너랑 살아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

억만광년(億萬光年)의 현암(玄暗)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 한 개의 별빛

<……>

어느 하많은 시공(時空)이 지나 / 모양할 수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백조(白鳥)는 살아서 돌아오라.

신동집, 『목숨』1~3연, 끝연³⁸⁾

숨을 쉬며 살아 있는 육체적 목숨은 전쟁으로 인해 흙의 빛갈로 때 묻어 있다. 여기서도 전쟁터로서 대지 그 자체와, 인간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생명은 더러워져 있다는 인식을 볼 수 있다. ‘백조’는 때 묻은 목숨을 정화한 순결한 생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때 묻은 목숨이 백조로 살아오는 데는 앞의 시처럼 오랜 시간, 즉 ‘하많은 시공(時空)’, ‘억만광년’의 현암(玄暗)을 거쳐야 한다. 그런 시간이 흐른 후 ‘한 개의 별빛’이 그 목숨에 와 닿아야 한다. 이 시의 ‘별’ 역시 흙으로 소멸해들어가는 대지적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주적 갱생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2연에서 볼 수 있는 화자의 생명의지는 ‘죽음보다 그리운 것’으로 표출되었는데, 생사

38) 『전쟁시선』, p.80.

를 넘어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향수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향수의 본원은 ‘별’의 세계이다.

푸른 절벽(絶壁)에는 / 먼 별과 별로 이어 네린 / 가슴으로 흐르듯 / 은(銀)
빛 물이 흐른다.//

절벽(絶壁)에서 피는 꽃은 / 핏빛처럼 붉다/ 붉은 꽃 떨기마다 / 다아 오는
별의 입김…….//

절벽(絶壁)은 / 내려 오는 별을 받아 / 푸른 눈을 감는다.

꿀벌처럼 매어 달려 / 꽃을 별이 뺏다.

소녀(少女)처럼 황홀(恍惚)하는 별을 안은 절벽(絶壁)---//

<……>

먼 별과 절벽(絶壁) 사이 / 밤이 밤을 헤이며 오랜 날이 가면,

뜨거이 다시 닫는 별과 별의 푸른 눈물.

한방울씩 뜨거이 쪽질 와서 적신다. / 한방울의 눈물마다 다시 꽃이 핀다. //

별을 향해 파닥 파닥 / 나비들이 난다. / 별을 향해 파닥 파닥 / 비둘기가
난다

박두진, 『절벽 絶壁』1~3, 7·8연³⁹⁾

절벽은 아주 높이 솟아 있으면서도 그 자체는 낭떠러지라는 점에서 상승과 하강, 천상과 지상의 양면성을 지닌 공간이다. 그렇지만, 시에서 별과 절벽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별은 절벽으로 하강한다. 절벽은 지상적인 세계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공간은 아니다. 시의 초반부에서 핏빛처럼 붉게 피운 절벽의 꽃을 매개로, 별과 절벽은 황홀한 생명적 교감을 이룬다. 그리고 어둠의 오랜 날을 지나 이제는 별의 눈물은 꽃이 되고, 꽃은 나비와 비둘기로 되살아난다. 여기서 별은 형이상학적 생명력을 암시하는 우주적 심상이다.

39) 『전선문학』7, pp.32-33.

이처럼 천체심상으로서 ‘별’은 대지와 멀리 떨어진 어둡고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빛으로 지상의 생명에 관여한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생명과 그 터는 더러운 것이며, 어둠의 오랜 시간 동안 별빛의 정화과정을 거쳐 대지의 생명은 정화되어 갱생한다.

IV. 결 론

본고는 한국전쟁기 시작품에 나타난 자연심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기 시인들의 시적 상상에 나타난 시의식을 고찰하였다. 전쟁기의 시적 상상은 갑작스럽게 겪은 극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식적인 정제(精製) 이전의 무의식적 감정의 표출에 가까운 것이다. 전쟁기간 동안의 시에서 특정 시기, 특정 개인의 시의식을 통해 전쟁 전과 후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 시인의 집단적 무의식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국전쟁기 시의 자연심상의 유형과 그 분포양상을 먼저 정리하였다. 고찰을 통하여 전쟁기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상상력을 접하게 되었다. 논의 결과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기 시에 나타난 자연심상의 양상은, 동식물 심상에서는 동물보다는 식물 심상이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였으며, 식물 심상 가운데서는 ‘나무’보다는 ‘꽃’ 심상이 지배적이었다. 하늘과 땅 심상에서는 대지심상보다는 천체심상이 주요한 시적 심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천체심상에서는 ‘달’보다 ‘별’ 심상의 빈도가 높고 아울러 주목되는 시의식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기 시의 자연심상은 식물심상인 ‘꽃’과 천체심상 ‘별’이 거듭 등장하면서 다른 시기와 변별되는 시의식을 드러내었다.

식물심상에 나타난 시의식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없는 자연친화

적인 생명의식이 매우 강렬하였다. 그런 만큼 전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경험할 때 시인들의 비극적인 생명의식은 극한에 이르게 된다. 천체심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의식에서는, ‘별’의 심상을 통한 독특한 생명의식을 주목하게 된다. ‘별’은 전쟁이 멈춘 밤과 어둠의 시공간에서 상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은 그 빛의 하강을 통해 생명이 파괴되는 대지와 오염된 생명을 오랜 시간을 거쳐 정화, 부활시키는 신성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표상된다. 전쟁기 시의 천체심상 ‘별’은 우주적 기운의 현현으로 표상되고 있는바, 한국전쟁 이전이나 이후의 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전쟁기 특유의 상상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전쟁기 시의 핵심적인 자연심상으로 등장하는 천체심상인 ‘별’과 식물심상 ‘꽃(잎)’은, 한국 현대시에서도 지상의 유한한 생명과 천상의 절대적 생명의 심상으로서, 한 편의 시 속에서 천상과 지상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함께 견주어지거나 서로 상관적인 심상으로 제시될 때가 이따금 있다. 지상의 잎새와 하늘의 별로써 『서시』를 썼던 광복 전의 윤동주나, 광복 후 『수석열전』 등에서 천상의 천체심상과 꽃 등 지상의 심상과의 교감적 상상력을 보여준 박두진 등, 주요 시인들에게서도 유사한 상상을 볼 수 있는바, 전쟁기 시에 등장하는 ‘별-꽃(잎)’의 심상체계는 한국 현대시사에서 상상력의 한 패턴으로 간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육군중군작가단, 『전선문학』, 192. 12.~1953. 12.
- 서울신문사출판국, 『新天地』(속간 전시판, 6-1호, 전시판 7-1호), 1951. 1. 12.
- 한국전쟁시선간행위원회, 『한국전쟁시선』, 상일문화사, 1973.
- 이승훈 편,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아지자 외,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 주제사전』, 청하, 1989.
- 김인섭, 『북한 전쟁시에 나타난 자연심상 고찰』, 『국어국문학』158호, 국어국문학회, 2011.
- 오세영, 『6.25와 한국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13, 1992.
- 이문걸, 『현대시에 나타난 자연 심상어의 변용적 의미』, 『새얼 어문논집』13, 2000.12.
-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 -『전선문학』 발표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42, 배달말학회, 2008.
- 정원채, 『한국전쟁시기 남북한 전쟁시 비교연구』, 『한성어문학』 24, 한성어문학회, 2005.
-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 21호, 2008. 4.
- 한형구, 『1950년대 한국시』, 『1950년대 문학 연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편, 예사, 1991.

Abstract

Research on image of nature and awareness of life
in Poem during Korean War

Kim, In-Seob

This research considers the aspect of image of nature appeared in the poetries written during the Korean War.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study poetry during the Korean War which were defined as a period of blank in Korean literature, and this is because the study on lyricism expression aspect of innate poetry is considered important.

As a result, plant images like 'flower' and 'tree' were mostly used, and astronomical images of 'star' and 'sky' were noticeable for natural images. Also other land images and animal images were appearing sporadically. For plan images, it shows peaceful scenes of home town or place destroyed because of the war however, i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shows a strong will to live even in extreme situations. Flower is appeared most frequently as the idea of life, and it is a comparative presence from the human life that is cornered to death. Mostly tree presents life itself as sucking up sap, the power of life, from the land or having full tranches or leaves.

In astronomical images, 'star' is frequently appears as a major image of poetry, and it gains attention at the point where similar poetic consciousness is expressed from works of different poets. Heavenly 'star' is imagined as to make bigger life world after a long period of time as bearing or curing dying life on earth. 'Sky' is described as clear and pure space, and 'moon' as image that expresses the negative mind. Other images of land and animal images are appearing in variety however, they are presented as a poetic background or simple symbolic image, so it is difficult to see as the dominant images during the Korean War.

The images of nature appeared during the war is caused by the extreme

experiences, so this could be considered as a fruit of poetic imagination according to unconscious protrusion before the conscious refinement. This also can be seen as a collective expression of unconsciousness of Korean poets who live through before and after the war rather than the poetic consciousness of a specific period or individual. In this wise, it is necessary to sound out the possibility as the archetypal-symbol for the images of 'flower' or 'star' during the Korea War.

Key Word : the Korean War, image of nature, plant images, astronomical images, awareness of life, a collective expression of unconsciousness

김인섭

소속 : 송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주소 :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전화번호 : 02-820-0348 / 010-4212-5874

전자우편 : kiseob@ssu.ac.kr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